

# 조수간만 차 작고 물살 약해지는 21~25일 구조 총력전 펴야

## 수색·구조작업 최적 시간은

시계도 1m 이상으로 밝아져

가족들 "선구조·후인양" 요구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에 구조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부터 바다가 가장 잠잠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생존자 수색·구조 작업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가족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 범정부대책본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대표단은 "인양 소요 시간을 고려해 어떤 장비를 써서 구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달라"면서 "일단 구조에 비중을 두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가족들이 정부에 수색 중단과 함께 선체 인양을 요구하자 대표단 회의 를 거쳐 '선 구조, 후 인양'을 요구한 것이다.

현지 어민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을 수색·구조작업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22일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조수가 가장 낮은 때)이다. 조금을 전후해 물살이 약해지고 조금 댄 물살이 거의 없는

'정조'(停潮·만조나 간조 때에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기간) 상태가 된다.

21일 사고해역 인근 해상인 서거차도 첫 간만조 기준 조수간만의 차이는 4.93m다. ▲22일 4.23m ▲23일 3.89m ▲24일 3.54m ▲25일 3.93m ▲26일 4.56m다.

사고 당일인 16일 6.39m를 비롯, ▲17일 6.75m ▲18일 6.77m ▲19일 6.40m ▲20일 5.75m과 차이가 난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을수록 물살이 약해지는 만큼 활발한 수색·구조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금껏 20~50cm(지난 16일~19일 기준)에 불과했던 시계도 1m 이상 밝아지는 등 투명해진다는 게 어민들 설명이다.

어민 최모(48)씨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기간 수색작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을 어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면서 "구조 당국은 이 기간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합동분향소와 시신 안치실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장례 절차는 가족들의 의견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 설치, 가족 전담 직원 상주, 정부 지휘체계 일원화, 셔틀버스 운행 단축, 가족 전용 선박 배치 등도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119 구조대원들이 진도 팽목항 선착장으로 인양된 희생자 시신을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 내용

시간	진도 VTS	세월호
9시 7분	오전 9시 6분 세월호 교신을 시도, 9시 7분경 교신 성공	지금 침몰 중인가?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무막드린다
		민군에 교신 중이던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 부탁
9시 10분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9시 14분	승객들이 탈출 가능한가?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
9시 17분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선원들도 브리지에 모여 거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외주기 바랍니다.'
9시 23분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장비를 착용토록 하라	방송이 불가능하다
9시 25분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탈출을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려라'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
		헬기가 1분 후에 도착한다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
9시 33분	'탑재된 구명벌과 구명정을 모두 투하시켜 바로 사람이 탈출하면 말 수 있게 준비 바랍니다'	
		이후 강도 떨어지기 시작
9시 37분		'침수상태 확인 불가하고 지금 해경이나 옆에 상선들은 50m 근접해 있고 좌현으로 탈출할 사람만 탈출시키고 있다'
		'배가 한 6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까지 다 떴다'
9시 38분	9시 37분에서 38분으로 넘어가기 직전 세월호-진도VTS 교신이 끊김	
- 9시 40분	승무원 등 150~160명 세월호 탈출	
- 10시 8분	세월호 침몰	

## 선박회사·선주 별도 수사... 본래 선장도 소환키로

### 수사 상황은

유기차사·수난구호법 위반

5가지 혐의 적용 선장 구속

3등 항해사·조타수도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 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차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선박 회사와 선주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사고 전 휴가를 떠났던 세월호의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의 본선장인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신씨가 조사에 협조하면 운항 과정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번침' 여부, 승무원 근무 시스템, 조타실 근무 정황, 세월호 정비 보수 관리, 화물 선적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에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 3등 항해사 박모, 조타수 조모씨 등 승무원 3명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차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번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배를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도록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지시했다"면서 "본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총장은 또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 김사장인 안상돈(52)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수사 총책임자로 지명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청해진해운, 여수~거문항로 일주일간 휴항 신청



○청해진해운이 전남 지역에서 운항중인 여수~거문항로에 대한 휴항 신청서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해온 데모크라시

1호의 일주일(21일~27일) 휴항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던 데모크라시호 대신, 오션호 프혜운의 줄리아 아쿠아호가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항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복개상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탁

궁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